

# 추워지는 계절 따뜻한 가족이야기가 그림이라면

올 연말 광주 지역 극단들과 대구의 극단이 모여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극단 청춘이 주관하는 '겨울연극축제-팜(Fam) 시리즈 2019'가 14일부터 12월28일까지 광주시 동구 호남동 예술극장 등에서 열린다. '팜시리즈'는 광주지역 예술극장 운영 활성화와 연극인구 확대를 위해 2016년 처음 기획된 공연이다.

극단 청춘은 가족극 프로젝트로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아들은 엄마의 나이를 모른다', '여자만세'를 무대에 올린다.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14일~16일)는 생명, 일, 사랑, 죽음 네 개의 에피소드를 유니버시티 형식으로 선보인다. 산부인과, 공원, 지하철, 다리 등을 배경으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내용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한다. 배우 차진아, 강현구, 임현지, 오명진이 무대에 오른다.

'아들은 엄마의 나이를 모른다' (28일~30일)는 엄마에게 무관심한 아들과, 아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았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 하루동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엄마역은 채희영이 아들역은 김민성이 맡았다. 딸은 김은미가 연기한다.

'겨울연극축제-팜 시리즈2019' 12월 28일까지 예술극장 통극단 통·바람꽃·고도, '채플린지팡이...' 등 6개 작품 공연



은 '최서희'의 삶 속에 '이여자'가 등장하면서 연극은 시작된다. 작품은 삼대의 불편한 동거를 보여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극단 바람꽃은 신통프로젝트로 '침대 밑에 아버

지 사나' (21일~23일)를 선보인다. 명예퇴직 후 집으로 가는 퇴근길, 태성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를 위해 꽃다발을 사서 집으로 간다. 아내를 깜짝 놀래켜주기위해 침대 밑으로 숨은 태성은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게 되면서 일이 커지고 만다. 최용규가 연출했고 안윤국, 정다현, 노은지, 김장준, 한종신, 신혜은 등이 출연한다.

작장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 우연이 '수상한 편의점' (12월7일)을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우연의 13번째 정기공연으로 박현숙 작가의 동화 '수상한 편의점'을 단원들이 직접 연극대본으로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기상악화로 인해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불안한 감정과 각자의 사연들을 그려냈다.

12월 12일~14일에는 축제에 초청된 대구 극단 고도가 '보고싶습니다'를 무대에 올린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친 남자 독화와 앞은 못봐도 밝고 생활력있는 지순이의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모든 공연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12월25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전석 2만원 (청소년 1만 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어진생활 DAY'

16일 양동커뮤니티센터 주민역량강화 결과 발표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진행된 '어진살이학교' 결과발표를 위한 가을잔치 '어진생활DAY'가 열린다. 16일 오후 1시 양동커뮤니티센터.(구성로 69-23)

새뜰마을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8월 취약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어진살이학교'에서는 주민들이 동네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안녕, 잠방', 마을 사람들 기록하는 '어진인물전', 양동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들어보는 'MADE IN 양동', 동네 이야기를 모으는 '어진생활사',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점검해주는 '건강교실' 등이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양동 주민들이 '레인보우 난타' 공연을 선보이며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또 '어진마을 청춘학당' 수업의 결과물로 제작된 이야기책 '어찌할꼬 했어도 하고 난 게 이리케 좋네'의 원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도 열리며 '건강교실'의 강사진들이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체험부스도 마련된다.

이밖에 어진마을새뜰주민협의체가 파전, 주먹밥, 막걸리, 커피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먹거리 나눔부스도 열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Today & Tomorrow

나주 안성현 국제현대음악제 18~30일 나주문예회관 등

'부용산'을 만든 나주 출신 작곡가 안성현 선생을 기리는 제9회 나주 안성현 국제 현대음악제가 18일부터 30일까지 나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린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이 주최한 이번 음악제의 주제는 'Today & Tomorrow'다.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제의 첫 공연은 '실내악의 밤1-양상블 컨서투스'다. 18일 오후 7시 전력거레소. 공연 레퍼토리는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G선상의 아리아',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 드보르작의 '스트링 콰르텟 아메리칸', 안성현의 '부용산', '엄마야 누나야' 등이다. 무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한경진, 정

원영, 비올리스트 문명환, 첼리스트 최지호, 소프라노 박경숙이 오른다.

20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실내악의 밤2-양상블 컨서투스'가 펼쳐진다.

작곡가 오명희가 '분리'를 선보이며 작곡가 김선철이 '부용산'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5중주'를 무대에 올린다.

올해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이영조 교수를 초청해 그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22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관현악의 밤-작곡가 이영조의 관현악과 칸타타'가 열린다. 나주 출신 시인 김중의 시를 원작으로 작곡한 칸타타 '황진이 천년 사람'를 비롯해 '정선 엮음 아리랑' 등을 선보인다.

무지크바움챔버오케스트라(지휘 김영연), 나주 시립합창단(지휘 김정연), 소프라노 김경림 등이 무대를 채운다.

소프라노 이유라 초청 독창회도 열린다. (23일 오후 7시 안성현음악홀) 이날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이유라가 작곡가 이영조의 '엄마야 누나야', '달밤', '별빛', '비단안개'와 작곡가 김선철의 '한국 고시에 의한 네 개의 가곡-구지가, 황조가, 정음사, 공후인'을 들려준다.

27일 오후 5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캄머트리오가 '타임머신(시간여행)'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캄머트리오는 조진희(리코더), 이하얀(리코더), 허영근(기타)으로 이뤄진 중중단이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여름', 코렐리의 '라플리아' 등을 준비했다.



이유라



정명원

피아니스트 정다희가 독주회를 선보이며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30일 오후 7시30분 안성현음악홀) 이날 공연에서는 프랑수아 피아노 음악을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올리비에 메시앙의 '칸테요자야', 피에르 블레즈의 '노타시옹' 등이다. 전석 초대.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근대 동아시아와 가족공동체' 조명

전남대 오늘 국제학술대회

근대 동아시아 '가족'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11월 15일 전남대 G&R Hub 세미나실에서 '근대 동아시아와 가족공동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연구자들이 모여 근대 가족 윤리, 가족 담론, 아동 교육, 가문 현장 등 가족공동체를 들여다보고 탐색하는 자리다.

근대 동아시아에서 가족으로 규정된 범위와 가

족 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 구분, 근대 가족 형성을 위해 배제된 것 등을 규명하기 위해 6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정미라 원장은 "가족의 형상을 규정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 근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변모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한·중·일 3개국의 시선을 통해 탐색해보는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과 철학연구교육센터, 역사문화연구원, 일본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주관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승규 작곡 발표회 1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예술가의 삶과 화가의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곡을 만든 작곡가 이승규(시진)가 작곡발표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1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장.

이 씨는 이번에 발표한 3집 앨범 '초월'에 담긴 수록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4곡으로 구성된 피아노 모음곡 '자음상(自音像)'은 화가 이강하의 '지화상' 작품을 보며 영감을 받은 곡으로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그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성장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플루트 소나타 '어느 예술가를 위한 노래'는 총 3악장으로 표현됐다. 플루트 연주자와 예술에 대

한 생각을 나누는 중 영감을 받은 곡으로 '예술을 왜 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음악을 통해 표출했다.

첼로 소나타 '초월'은 화가 이강하의 그림을 중심으로 작곡한 곡으로 총 4악장으로 구성됐다. 곡에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애환과 아픔이 담겼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표현됐다. 공연에는 박효은(첼로), 나리(플루트)씨가 출연한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안정복문학상 대상에 조선의 시인

최근 개최된 제2회 안정복문학상 대상에 조선의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순암(順庵)의 빛'이며 상금 300만원.

안정복 문학상은 '동사강목'의 저자이자 실학자인 순암(안정복선생(1712~1791))의 문학을 계승하고 실학 정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다. 현대시문학사안정복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며 순암연구소가 주관한다.

한편 군산 출신인 조선의 시인은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왔으며 신석정출판문화상, 김만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 '당신, 반칙이야', '어쩌면 쓰러진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등과 시 창작교재 '생명의 시'를 펴냈다. 현재 서은문학연구소장 겸 시 창작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9년 12월 송년모임 **신양파크호텔 감사이벤트** 2020년 1월 신년모임

**12월 송년 및 1월 신년모임 감사이벤트**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 10% 할인
- 음료 · 주류 .....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 제공 }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 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모집**  
(월 2회 휴무/매월 2, 4주 수요일)

구분	월	6개월	1년
개인	₩ 300,000	₩ 1,200,000 (월 ₩200,000)	₩ 2,000,000 (월 ₩166,670)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